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지역개발연구부 장남정 연구위원
(063-280-7162)

보도시점: 2021년 7월 19일(월)부터

탄소중립, 더 늦기전에 전라북도 먼저!

기후위기 시대,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인 탄소중립의 지자체 역할 강조
지자체 선도를 위한 상쇄-도약-포용의 3대 전략과 주요과제 모색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'2050 탄소중립'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, 전라북도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선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 '기후위기 시대,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'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,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.
-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상은 모두의 희생, 백신, 치료제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,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'기후위기'로 인해 인류는 코로나 19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지구기온 1.5℃ 상승제한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'탄소중립' 달성이 필요하며, 세계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정부는 탄소중립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, 분야별 전략 수립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,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. 국내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한 만큼,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.
-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3대 전략 9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.
 - 탈탄소·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'상쇄' 전략으로 △에너지 전환 가속화, △미래 모빌리티 선도, △스마트 농생명 선점, △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과제를,
 -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'도약' 전략으로 △신산업 육성, △고탄소 산업구조 혁신, △순환경제 활성화 과제를,
 -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의 '포용' 전략으로 △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, △공정한 전환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다.
-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표 이후 분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.